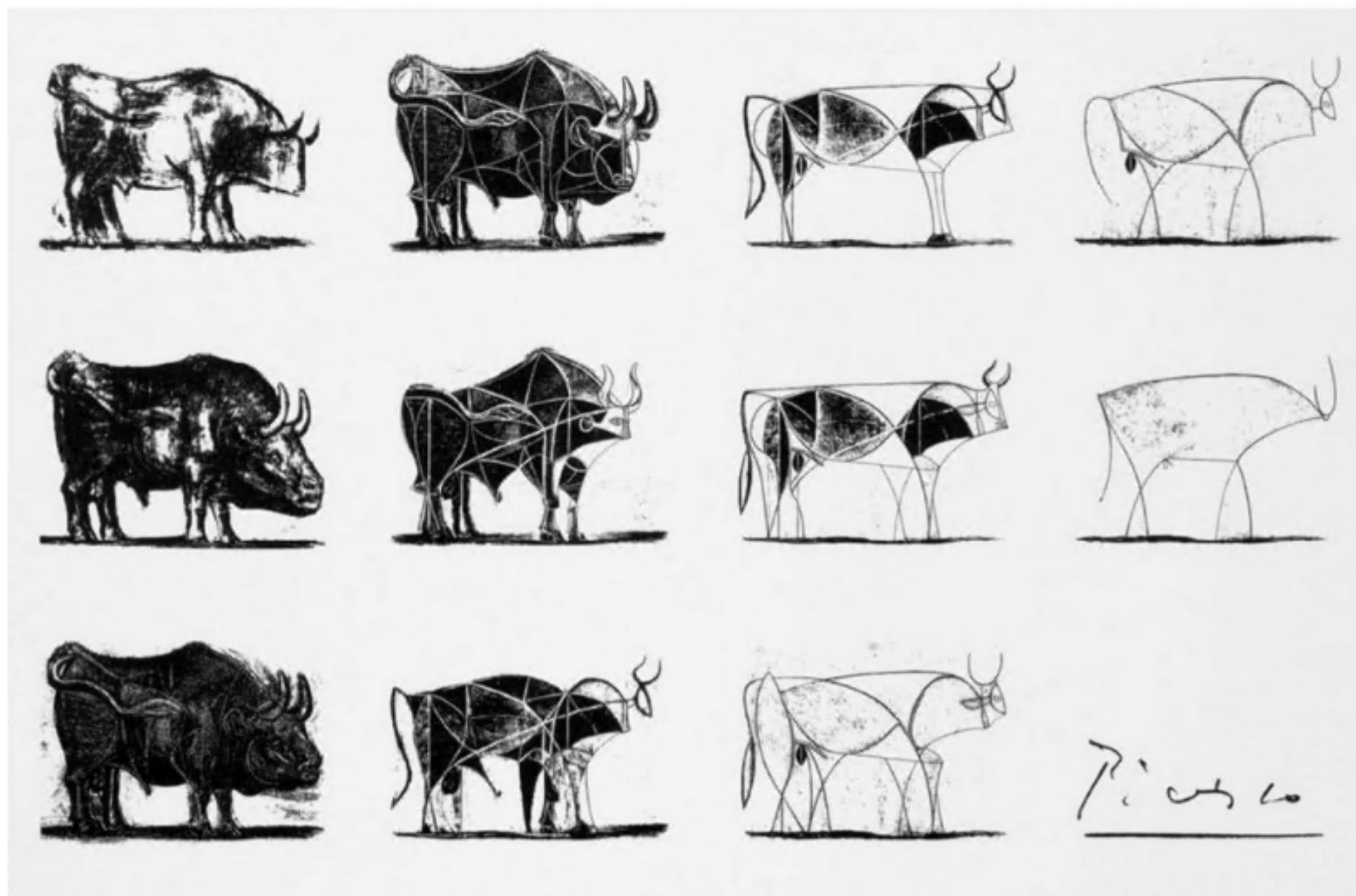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1〉 피카소의 멀어냄



Pablo Picasso, The Bull, 1945

© 2022 – Succession Pablo Picasso – SACK (Korea)

《Think Better》라는 책에서는 집요함을 설명하면서 ‘서드-서드 싱킹(third-third thinking)’이라 표현하더라. 먼저 세 번 생각해. 그렇게 세 번 생각하기를 반복하고, 또 반복하여 세 번의 세 번을, 그러니까 진이 빠지도록 고심해 귀한 답을 얻는다는 의미지.

SK에 최종현 회장님이 계셨잖아. 참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어. 잭 웰치도 그렇고,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뛰어난 경영자들은 나름의 경영방식을 모델로 만드는데, 최 회장님도 당신만의 경영방식을 만들어서 수펙스(SUPEX)라 이름 붙였어. ‘Super Excellence’의 줄임말이야.

만약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자네 회사에 와서 대표를 맡는다고 해봐. 그럼 3년 후에 얼마나 벌 것 같아? 웃지만 말고 정말 상상해봐. 얼마나 달성할 것 같아? 그래, 엄청나겠지? 그걸 자네는 왜 못할까?

수펙스는 ‘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어디일지’를 생각해보는 거야.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퍼 엑셀런트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는다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? 그렇게 예상된 값을 ‘수펙스 기준’이라고 해.